

# 美 B-2 폭격기 6대 37시간 논스톱 비행 후 벙커버스터 투하

트럼프, 18일 “최후통첩”·19일 “2주내 결정”…종잡을 수 없는 발표로 본심 숨겨

‘2주간 협상시한’ 제시한 듯 말해 이란 안심시킨 후 이틀만에 ‘전격 기습 작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무력으로 이란 핵시설을 전격 공격하기까지 외부에서는 실제 공격 감행 시기나 방식, 무력 동원 규모를 좀처럼 감지하기 어려웠다.

우선 말 그대로 전격적인 기습 작전이었기 때문이다.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상황이 수시로 바뀐 면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쉽게 수시로 번복하거나 상황을 과장해 극단적으로 말하는 특유의 어법을 구사하면서 외부에서는 그의 속내를 간파할 수 없었다.

로이터·AP통신과 미 워싱턴포스트(WP) 보도 등을 종합하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란과의 핵협상 결렬 조짐이 나타나면서 중동 지역 내 안보 위험 증대 분위기가 조성되자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어서 그들(대사관 인력)이 빠져나오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튿날인 12일 이스라엘이 이란에 선제 공습을 감행한 당일(테헤란 시간 기준 13일)에는 소셜 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핵 문제를 ‘외교적 해결’로 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13일엔 “공습을 미리 알았다”면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 “훌륭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별도로 두 달 전 이란에 핵 합의를 요구하며 60일의 시한을 줬다면서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할지 알려줬지만, 그들은 그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제 그들은 아마도 두 번째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4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문제를 협의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말하면서도 푸틴과 마찬가지로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협상 재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외 메시지 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호전적’ 인 용어를 앞세우기 시작한 건 이스라엘과 이란 상호 간 지속되는 공습으로 ‘핵 협상은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 자배적이었던 15일까이다.

급기야 16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 참석했다가 일정을 앞당겨 밤중에 돌연 조기 귀국길에 오르면서 당시 상황을 둘러싸고 여러 관측이 나왔다.

일례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 소셜미디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미군이 포르도의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이란의 세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수행했다고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올린 글에서 “(이스라엘-이란) 휴전과는 관계가 없다”며 “그것보다 훨씬 큰 것(Much bigger than that)이 있다”고 적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외교적 노력이 무산되거나 이란이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을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벙커버스터

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승인했지만 “이란의 결정을 지켜보기 위해 실제 공격은 보류했다”고 잇따라 전해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WP는 “트럼프가 이란 폭격 여부를 저울질하는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순간을 맞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에 핵 프로그램

해체를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18일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미국의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할지’에 대해 “내가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다소 모호한 뉘앙스를 남긴 바 있다.

/연합뉴스

## 구글·애플 등 로그인 정보 160억건 유출…“비번 바꾸세요”

데이터셋 30개…지구 인구 2배 규모 개인별로 다수의 계정정보 셋을 가능성이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에서 160억개에 달하는 사용자 로그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주요 플랫폼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가 대거 유출돼 사이버 범죄자들이 전례없는 계정 접근 기회를 손에 넣게 된 만큼 계정 비밀번호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21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보안 전

문체체 사이버뉴스는 이번 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출된 로그인 정보가 정리된 데이터셋 30개를 최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각 데이터셋에는 방대한 양의 로그인 정보가 담겨 있었고, 유출된 정보를 합치면 총 160억개에 달했다.

여기에는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플랫폼 사용자의 계정 비밀번호 등이 포함돼 있었다.

유출 정보 160억개는 현재 지구상에 있는 인구수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사용자 1인당 1개 이상의 계정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사이버뉴스는 유출 정보에는 중복된 것도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보 유출을 당했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 로그인 정보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한 번의 해킹으로 탈취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다수의 사건을 통해 수집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 탈취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개인 정보를 훔치기 위해 제작된 악성코드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렇게 모인 정보가 사이버 범죄자들이 활동 무대가 되는 디크웹(암호화된 네트워크)에서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정보 유출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는 ‘사이버 위생’에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규모 유출이 확인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는 비밀번호 변경이다.

향후에는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로그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많은 비밀번호를 기억하기 어렵다면 비밀번호 관리 도구나 패스키를 사용하고, 전화나 이메일, 이동식 저장매체(USB) 인증키를 거치는 ‘멀티팩터 인증’(MFA)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했다.

/연합뉴스

## 멕시코서 ‘6·25 참전용사의 날’ 행사

멕시코의 6·25전쟁 참전용사의 현신과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주멕시코 한국 대사관이 마련한 ‘참전용사의 날’ 행사가 21일(현지시간) 할

리스코주(州) 과달라하라에서 열렸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행사에는 멕시코 참전용사회 회장인 돈 로베르토 응과 그의 가족, 미

겔 양헬 에르난데스 멕시코 5광역사령관(중장), 헤태완 주멕시코 한국 대사, 윤호용 삼성전자 멕시코법인장 등이 참석했다. 돈 안토니오 응과 돈 알베르토 응 등 다른 생존 참전용사 2명은 건강 등 이유로 가족이 대신 자리했다.

한국 국방부는 참전용사 후손에게 장학금을 전

달했고, 삼성전자는 별도로 참전용사 가정에 스마트폰을 선물했다고 주멕시코 대사관은 전했다.

6·25전쟁 중 미군 소속으로 참전한 멕시코인 또는 멕시코계 미국인은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중 당국에서 현재 생존해 있다고 파악한 멕시코 내 참전용사는 3명이다.

/연합뉴스

日 “中 당국 선박 센카쿠 주변

216일 연속 항해…역대 최장”

중국 해경국 선박이 22일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열도 일본 측 접속수역에서 확인돼 중국 당국 선박의 연속 항해 일수 역대 최장을 경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이날 중국 해경국 선박 4척이 모두 기관포를 탑재한 채 항해하는 것을 발견해 영해로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일본이 센카쿠 주변 해역에서 중국 당국의 선박을 확인한 것은 지난해 11월 19일 이후 이날까지 216일 연속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2012년 9월 센카쿠 열도 국유화를 선언한 이후 가장 긴 연속 항해 기간이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 해안을 기준으로 22km 이내 바다를 영해, 영해 바깥쪽 22km 바다를 접속수역으로 각각 설정했다.

하지만 센카쿠 열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국은 일본이 정한 열도 접속수역과 영해에 꾸준히 선박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남도  
밥상

을  
지  
키  
는  
사  
민  
들

최지영  
남정자  
박기순  
조장희

▲ 광주매일신문

##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푸른 자연으로 맛깔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 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염전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 예금주 - (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

